

---

---

**선진통계교육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

**2008. 9**

**통계청 통계교육원**

# 차 례

I. 출장개요 .....	1
II. 기관별 방문 및 회의결과 .....	3
1. 독일통계청 .....	6
* 주요회의내용	
(1) 독일통계교육시스템 .....	7
(2) 대학 및 과학기관과 협력 .....	8
(3) 현재와 미래의 유럽수준에서 통계교육 .....	9
(4) 통계능력개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	12
(5) 한국의 통계교육원 소개 및 국제교육협력사업 .....	13
(6) 통계교육원의 e-Learning 소개 .....	15
(7) 카자흐스탄의 통계교육시스템 .....	16
(8) 향후협력방안 .....	18
2. InWEnt .....	19
3. Eurostat .....	22

<붙임 1> 독일통계청 발표자료

<붙임 2> 카자흐스탄 발표자료

<붙임 3> InWEnt 발표자료

<붙임 4> Eurostat's 2008과 European Statistical Training Programme

**I****출장 개요****1. 출장 목적**

선진통계 교육기법 · 내용 등을 상호 비교 연구하여 이를 발굴 · 도입 함으로써 우리통계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가. 독일 및 유럽의 통계교육기법 발굴, 교육과정 개발, 설문조사기법 등 벤치마킹
- 나. 독일 비영리 교육기관 중 하나인 InWEnt를 방문함으로써 통계분야에 관한 국제교류협력과 e-Learning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 다. 2010년까지 새로운 유럽통계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는 Eurostat 관계자와 회의를 통해 향후 협력 방안 모색
  - 특히, 2009년 남아공에서 개최하는 세계통계대회(ISI)에 통계교육분야에 관한 아시아 대표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
- 라. 카자흐스탄의 통계교육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독일통계청과 공동 지원

**2. 출장 개요**

- 가. 기 간 : 2008. 8.25(월) ~ 8.31(일), 6박7일
- 나. 지 역 : 독일(독일통계청, InWEnt, Eurostat)
- 다. 출장인원 : 총 3명

소속	직급(직위)	성명	비고
통계교육원	4급(교육기획과장)	전백근	
통계교육원	5급	황호숙	
통계교육원	7급	한영수	

### 3. 주요 활동 및 성과

#### 가. 독일통계청

##### ○ 주요논의내용

- 한·독·카자흐스탄 통계교육시스템 발표 및 질의응답
- 향후 협력방안 모색
- 터키 통계교육시스템 발표 및 질의응답

☞ 터키의 경우, Mr. Sevket Kirici가 교육생으로 독일에 머무는 중 이번 3개국 회의에 참석한 후 터키 통계교육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을 했음

##### ○ 주요성과

- 독일 통계청은 단계별·수준별 교육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져 있었으며 통계교육원 2009년도 교육계획 수립시 참고하고자 함
  - 317개 국내교육과 워크숍 형태로 강의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2-3일의 단기과정으로 운영되어졌음
  - 독일 통계청의 통계분야의 종사자는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한 자를 선발하는 관계로 통계학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것이 한국의 통계 교육과정과 차별화되었으며, 대부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홍보, SAS 등 통계패키지과정, 정보화 과정 등이 운영됨
  -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수준별 5개 단계로 이루어진 강화된 영어 교육 과정이 괄목한 만하였음
- 연방통계국에 「연구데이터 센터(RDC)」와 「Institut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Official Statistics」를 통해 대학과의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었으며, 미래의 데이터 사용자들이면서 새로운 직원을 교육시키는 차원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 한국의 KOICA와 비슷한 차원의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음
- 독일에서는 한국의 e-Learning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

## 나. InWEnt(비영리 교육기관)

### ○ 주요논의내용

- 사이버 교육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논의
- InWEnt에서 운영 중인 BL과정 운영사례 발표
- 한국의 e-Learning시스템 소개 및 질의 응답

### ○ 주요성과

- BL과정으로 운영되는 사이버 교육과정의 벤치마크 필요
  - 「국민계정」 과정에 우리나라의 참여 의사 표명
- 각 과정의 참여자수를 20~25명으로 제한하고 지도교수제(10명 이내/교수)로 운영되는 등 교육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법 도입

## 다. Eurostat 교육훈련 담당자

### ○ 주요논의내용

- 통계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 논의
- ESTP과정 중 「국민계정」 과정에 한국인의 참여 가능성 논의
- 2009년 ISI 대회 통계교육에 관한 발표자로서 참석

### ○ 주요성과

- Eurostat에서는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정(ESTP)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부분의 과정은 통계적인 처리기법과 국민계정 등 통계학위주보다는 통계를 처리하는 업무 위주의 교육으로 대부분 3~4일의 단기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09년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ISI 교육세션에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 국가들을 위한 통계교육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를 해줄 것을 요구함

## 1. 독일통계청

가. 방문일시 : 2008. 08. 26(월) ~ 08. 27(화)

### 나. 참가자

- (1) 한국 : 전백근 교육기획과장 외 2명
- (2) 독일 : Mr. Peter Weigl(부청장), Ms. Waltraud Moore(국제과장) Mr. Bernd Stortzbach(국제과 부서장), Mr. Wolfgang Schulze(국제과 부서장), Ms. Simone Koll(국제과 직원), Mr. Maurice Brnadt(데이터 연구센터, 연구발전기구 직원), Ms. Kathi Heinrich(인적자원 부서 직원, 심화 교육)Mr. Bruno Speer(국제과 직원)
- (3) 카자흐스탄 : Mr. Birlik Mendybaev(카자흐스탄 통계청 부청장)
- (4) 터키 : Mr. Sevket Kirici(터키통계청 교육생)

### 다. 주요 활동사항

- (1) 독일의 통계교육시스템 발표
- (2) 한국의 통계교육원의 통계교육시스템 발표
- (3) 카자흐스탄의 통계교육시스템 발표
- (4) 터키의 통계교육시스템 발표
- (5) 향후 협력방안 모색

## 라. 주요회의내용

### (1) 독일 통계교육시스템 발표

- 직원들의 개인발전과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교육과 워크숍, 연방아카데미, 유럽통계교육시스템, 언어교육, 맞춤형 발전교육 등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07년 317개의 국내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30명 정도의 외부강사와 약 150명의 내부강사가 있음
- 국내교육과 워크숍은 주로 리더십, Communication, 미디어 및 홍보, 개인 작업 설계, 정보 테크놀로지(SAS 등으로 운영), 신규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통계청의 통계사무소 집합교육의 등록은 2달전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참가자의 수에 따라 상이하다고 함. 2007년의 전체 비용은 약 50,000Euro(한화 8천만원)라고 하며, 3일 과정의 경우는 1인당 약 100Euro(16만원)정도라고 함
- 외국인 언어 교육은 영어교육에 초점을 맞추며, 수준별로 5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절차를 가짐
  - ① 교육수요파악
  - ② 교육프로그램 특정화
  - ③ 교육프로그램 공표
  - ④ 신청
  - ⑤ 교육진행
  - ⑥ 평가
- 교육프로그램을 특정화할 경우, 교육과정의 주제, 목표, 시간, 대상, 강사, 강의장, 횟수, 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설계함

- 교육프로그램의 공표는 인트라넷(사내정보망), 브로슈어,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개함
- 교육진행은 직원 초청 및 강사와의 협력을 통한 과정 준비, 강의장 준비, 강의 진행, 평가, 개인 데이터 은행 등록 등의 순으로 진행함
- 과정평가방법은 인터넷상으로는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서류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
- 지원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엄격한 지원 자격을 두어 선발하여, 이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만 선발하고 있음.  
예) 국민계정의 경우, 경제학 학사 학위, 2년 이상의 경제통계분야 경험자, 영어 능력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두어 선발하고 있음

## (2) 대학 및 과학기관과의 협력

- 연방통계국의 「연구데이터 센터(RDC)」는 2001년 10월에 설립되었고 비스바덴과 본, 베를린에 위치하며, 공식 마이크로데이터 사용의 상담·서비스, 공식통계자료에 대한 과학적 커뮤니티의 접근을 관리하고 있으며, 독일의 데이터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과학적 사용을 위해 공식통계를 작성하도록 준비하는 기관임
- 「공식통계 연구와 개발 기구(1990년 11월에 설립)」는 , 새로운 방법과 절차의 연구와 시험, 과학과 연계, 방법론적 작업의 해석과 유포 등의 기능을 하는 기관임
- 어떤 프로젝트는 응용경제 연구기관 등과 같은 다른 과학 팀과의 연계에 의해 수행되며, 매해 9월 첫째주경 통계주간에 공식 통계와 과학에 관한 과학토론회 등이 열리며 대부분의 통계청 직원들은 “German Statistical Society”의 회원으로 참석하고, 경제와 통계, 통계와 과학 등 e-book 등도 제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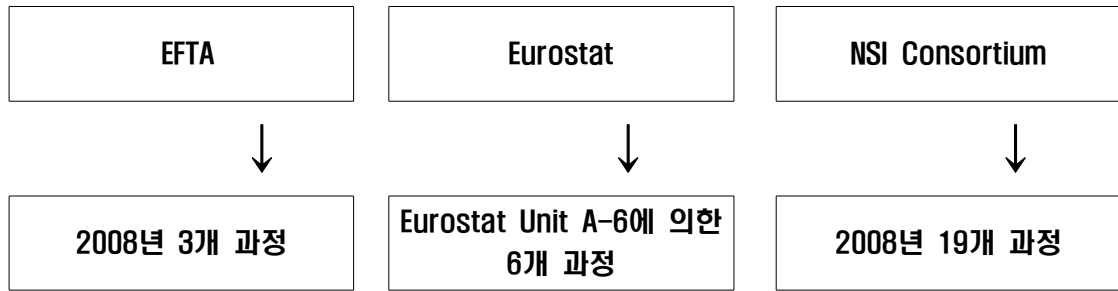


- 대학과의 협력사업은 단지 통계교육을 위해서 가공된 완전한 익명성을 가진 마이크로데이터(Campus-file)를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연구개발센터에 의해 높은 수준의 학생들을 위해 통계 강의도 제공되고 있음
  - 강의는 공식통계에서 데이터 수집의 절차에 대한 지식과 campus-files의 실행으로 구성됨
- 연구개발센터의 6명의 연구가들은 경험 과학에 관련이 있으며 대학에서 강의도 직접 수행하며, 독일통계청은 과학적 교환을 위한 국내·국제적 회의에 참가하며 대학이나 다른 과학 기구들과도 긴밀히 접촉하고 있음
- 결론은 공식통계의 품질은 통계와 과학의 교환으로 달성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공식통계에서 젊은 과학자 세대는 필수적이며 미래의 데이터 사용자들과 신규 직원을 교육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

### (3) 현재와 미래의 유럽 수준에서의 통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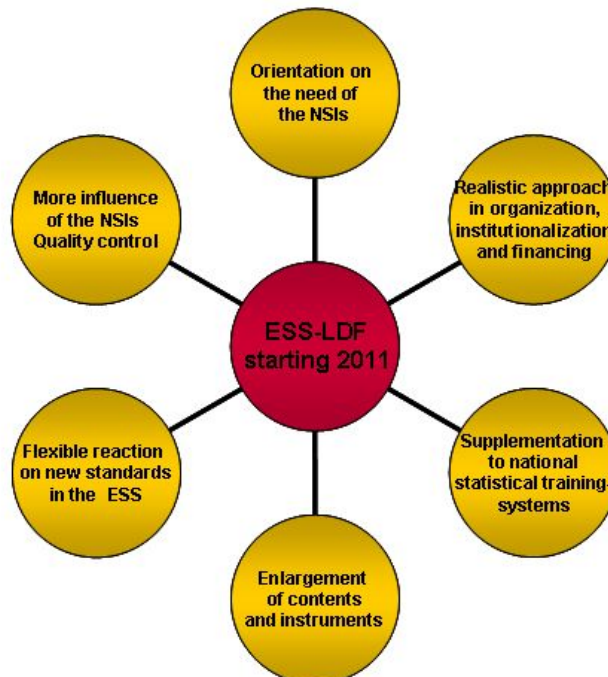
- 유럽에서의 통계교육은 유럽통계시스템(European Statistical System : ESS)에서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통계교육프로그램(ESTP)은 Eurostat, EFTA States(노르웨이와 스위스)와 국가통계기구 연합체(NSI Consortium, 18개)에 의해 전통적인 교실에서 진행되는 형태의 25개~30개 정도의 과정이 있음
  - 유럽 통계 시스템인 학습과 발전에 관한 구성 체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통적으로 교실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기본이지만 새로운 도구와 수단을 이용할 예정임

○ 2007년부터 2010까지 통계교육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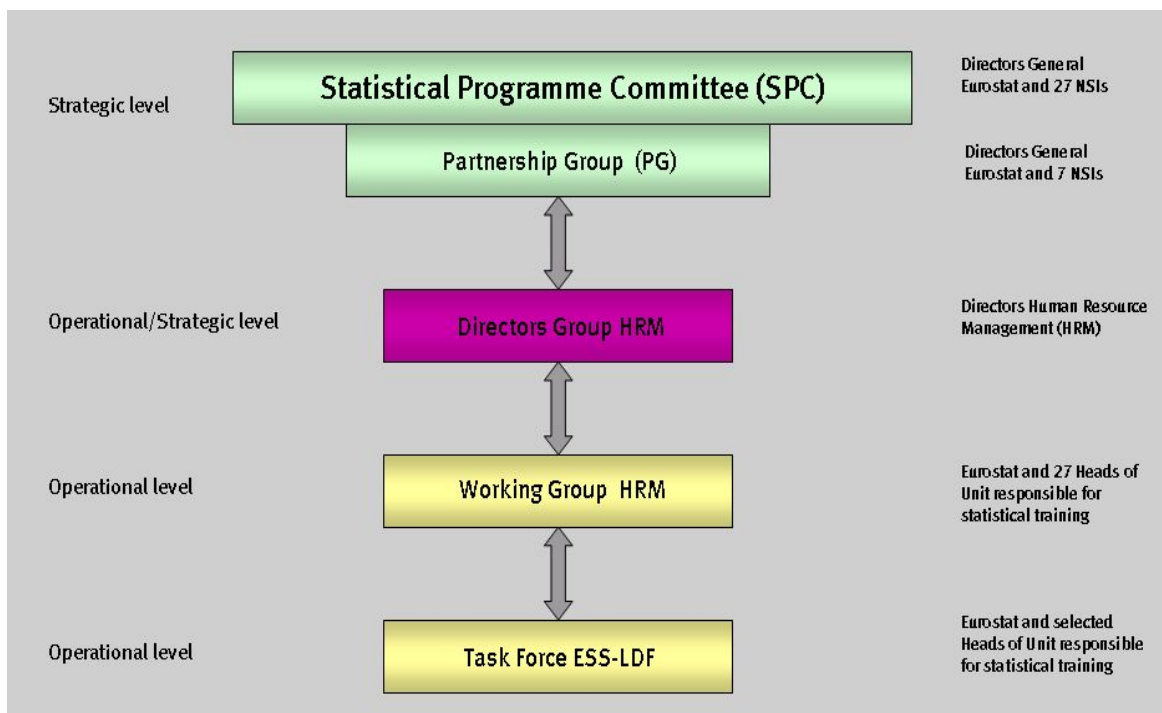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새로운 ESS-LDF(학습과 발전에 관한 체제)의 특징으로는 NSI 연합체의 요구에 대한 예비 교육, 기관·제도화·재정에 대한 실제적 접근, 국가통계교육 시스템에 대한 보조, 내용 및 수단에 대한 확대, 유럽통계교육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에 관한 상호 작용, NSI 품질 관리의 더 많은 영향 등이 있음

- 이런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한국과 같은 나라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새로운 ESS-LDF 내용 및 우선순위로는 교실형태의 교육이 기본으로, 능력 프로파일의 확인, 강사풀의 구성, 학습과 발전에 관한 통합 운영, E-Learning과 Study Visit, 여름 학교 등의 보조적 수단 이용, 교육 효과 측정, 교수 보조 및 매뉴얼의 발전, ESS의 내외에서 능력 개발, NSI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이해관계자(통계관련자)에 대한 교육이 있으며, 한국의 기본적인 구성틀과 비슷함을 확인

- ESS-LDF에서 조직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 통계작성부서에 SAS 프로그램의 활용은 프로그램 가격이 비싸므로 한국 통계청과 같이 일부부서에서만 활용되고 있음

#### (4) 통계능력 개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 통계능력 개발이 강조되는 이유는 1999년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UN-ECOSOC) 결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와 국가 발전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가의 통계교육 개발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임
- 통계능력개발은 철저하게 수요에 기초를 두며, 전략적 연간 프로그램 기획, 품질 관리, 인적자원 개발, SAS, SPSS등의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 등의 여러개의 프로그램들이 있음
-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① 수요 기관이 주제를 정함
  - ② 독일통계청은 그 과정(1~3주 과정)의 의제를 정함
  - ③ 수요기관은 참가자를 정함(5명~21명)
  - ④ 장소를 정함(수요기관의 모국 혹은 독일)
  - ⑤ 과정이 독일에서 진행된다면 독일통계청이 세부계획 및 통역 제공
  - ⑥ 수요기관의 국내 과정을 위해서는 수요기관이 통역 제공
  - ⑦ 수요기관이 그 과정의 재정 부담,  
단, 독일통계청이 가능한 기부기관에 대한 조언
- 교육 서비스는 국제적 경험과 명성을 가진 교육가와 전문가, 교육교재 및 문서, 사례연구와 유관 기관 방문, 토론 중심의 교육, 평가 등을 제공하며, 2004년 이래로 40여 회의 능력 개발 과정의 경험이 있었음
- 2004년 이래로 진행되었던 과정들의 대상 국가로는 러시아, 터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타지키스탄, 타이, 몽골, 불가리아, 중국이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KOICA와 터키의 TICA와 연계한 국제협력 사업과 비슷함을 알 수 있음

- 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고려하여할 사항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합작 과정의 운영, 다양한 수요기관의 요구에 충실, 지방의 참여, 연방 아카데미와의 협력 등이 있으며,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는 중임

## (5) 한국의 통계교육원의 소개 및 국제교육협력사업

- 통계교육 관련하여 그 대상범위는 Eurostat과 독일통계청의 교육대상자들보다 광범위하며, 특히 이용자 중심의 교육은 통계교육원이 특화되어 있음.
  - 통계 이용자 중심의 교육에는 어린이통계교실, 중학생통계아카데미, 대학생통계실무연수, 한국관광공사 직원, 대한통계협회 직원 교육 등 학생 및 일반인외에도 통계작성자 등 이용자 대상 교육이있으며, 독일통계청에서는 이점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임을 표명함
  - 독일 통계청에서는 통계이용자 교육에 대한 범위, 기준, 시행 방법,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며 추후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기로 함.
- BL 및 AL 기법은 현재 유럽에서도 시행하는 기법으로, 과정 참여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상호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함
- 카자흐스탄은 지방통계기관이 독일과 상이하나 한국과 비슷한 유형으로 존재하며, 지방통계기관을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요구하였음. 통계교육원은 12개 지방청(사무소)의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며, 초등학생의 통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목적으로 어린이 통계교실을 운영 중임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강사가 직접 내려가서 하는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음

- 한국과 독일의 교육계획 수립 절차는 서로 비슷한 면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단지 한국은 연간 교육계획 수립을 연중 실시하고 수시교육을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나, 독일은 Eurostat과 협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한국처럼 지방통계청이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 수시교육에 대한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함
- 통계교육원은 Excel, VB엑셀 매크로 프로그래밍, 홈페이지 작성, 웹 디자인 등 정보화 교육을 운영 중에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독일 통계청에서는 통계와 관련성이 없는 정보화 교육을 통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표명하였음. 이에 대해 통계작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화 능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재정수입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어 폐강하기는 어려우나 점차적으로 줄어나갈 것임을 답변하였음.
- 독일통계청의 경우는 통계와 관련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없는데, 이것은 인사 채용 시스템이 한국과 달라 이미 대학에서 전공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함에 따름을 알 수 있었음. 한국 통계청의 경우는 인사 채용시스템의 한계로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 중견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통계 관련 교육과정이 있음을 설명 하였음
- 2009년 9월 입주 예정인 통계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자료를 설명하였고, 참가자들은 그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음. 독일 국제과 부서장인 Stortzbach는 통계센터 입주 이후인 10월 경 통계교육원을 방문하여 통계교육 및 E-Learning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함

### 《국제교육협력사업 관련 소개》

- 국제교육협력사업 관련하여 한국은 중국 통계교육센터와 교육기법 및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MOU를 체결하였으며, 격년제로 상호 방문함을 설명함

- 한국은 그 외에도 국제교육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아·태 통계연수소(UNSIIP) 등과 협력하여 국제교육 협력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만 KOICA 과정 4개, UNSIAP 과정 2개를 운영하였음을 소개함. 프로그램 및 연수 내용, 목적 등은 독일 통계청 진행 국제 교류협력 사업과 비슷한 내용임이었음을 알 수 있었음

## (6) 통계교육원의 e-Learning 소개

- 통계교육원의 e-Learning 시스템에 대해서는 독일 통계청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대표단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음. 통계교육원의 e-Learning 시스템은 2005년도에 2개의 과정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어 현재(2008년) 19개 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반하여, 독일통계청은 e-Learning 교육 운영을 현재 구상하는 수준이었음. 따라서, e-Learning 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합의함
- 통계교육원에서는 2008년에 사이버교육을 통해 4,000명을 100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독일 통계청에서는 인력,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며 의아해 하였고, 사이버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함
- 현재 사이버과정중에는 BL로 운영하는 과정이 있으며 엑셀을 이용한 통계 분석 및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과정이 있다고 설명함. BL과정은 사이버과정으로 전달할 수 없는 교육내용을 사이버 과정 이수후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되는데 향후 그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이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유럽에서도 e-Learning 교육과정이 있고,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현재, 여러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EU의 특성상 e-Learning 교육을 정비하고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함.

- 교육 시간을 어떻게 산출하느냐는 질문에 한 개의 과정은 약 20여개의 모듈로 되어 있으며, 한 모듈의 강의 시간이 대략 30분임을 설명하여 교육시간을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함
- 현재 사이버 교육과정 중 통계전문과정의 경우는 수료율이 70%이고, 조사지침서를 강의하는 사이버과정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90%의 수료율을 보인다고 설명함.
- 또한 사이버 교육과정의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수료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과정 진행 중 교육자는 한 페이지당 7번 이상의 터치를 하여야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사이버교육과정의 품질을 높이고 수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함께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직접 e-Learning 콘텐츠의 시연을 보고 싶어했고, 직접 접근을 시도해봤으나, 독일통계청의 시스템상 error가 발생하여 각 세션별로 직접 강의를 이루어지는 화면은 접속이 어려웠고, 전체적인 운영절차에 대한 설명만 이루어 졌음
  - 한국의 e-Learning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두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향후 보다 더 심도 있는 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음

## (7) 카자흐스탄의 통계교육시스템

- 카자흐스탄은 Eurostat과 World Bank의 지원, 통계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3년간의 전략이 개발되었고, 인적자원 개발은 전략적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교육센터의 발전이 계획되어 있음
- 2009년에서 2011년까지 통계이용자 만족도는 매해 15%증가하여 2011년에는 현재 50%~76%을 목표로 하며, 응답 부담 시간은 매년 15% 감축하여 2011년에는 현재 168시간에서 103시간으로 줄일 계획임
- 카자흐스탄 통계청의 종속된 IT 회사의 하부기구로 교육센터가 존재함



- 모든 대학은 경제 과목 중 통계가 다루어지지만, 통계이론과 주요 원리만 다루고 통계적 메타데이터, 표본추출, 조사 등은 다루지 않음
- 카자흐스탄 통계청은 계속되는 교육시스템을 이행하고 국제 수준의 통계교육 인프라를 발전시킴으로써 통계이용자와 응답자를 전문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함
- 대상은 통계청 교육수준으로 관리자, 전문가, 실행자로 구분하며, 응답자로는 기업, 일반 대중, 행정부, 무역기관으로 구분하고, 이용자는 일반대중, 미디어, 정책결정자, 연구소, 국제 기구 등으로 나뉨
- 교육 대상의 수는 실무자들은 1년에 2,000명(작업 기술 발전, 새로운 기술, 일반적 워크숍) 관리자는 1년에 50명(전문 기술 발전, 관리 교육) 전문가는 1년에 100명(전문적 발전, 경험 교환, 연구, 분석 작업, 자기 학습)이며, 그 외에 응답자(방법론, 설문지 작성, 전자 통계 보고)와 이용자(형태와 필요에 따라 다름)가 있음
- 다른 관련 정책으로 IT 이행과 재설계 작업으로 인한 지방 직원 들을 감원이 있으며, 2009년 2월 50,000명의 조사원 및 현장 노동자 등이 교육받아야 하는 상황임
- 각 부서가 교육 그룹 형태에 필요한 전문 수준을 세우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과 본부는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국의 지방 통계교육과는 다른 형태를 취함
- 내부 강사로는 대학 강사와 통계청 전문가, 지역 수준의 교육가 등이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개발되었고 외부로는 통계센터를 경유한 국제 수준의 강사가 있으며, 계획되었으나, 실행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현 카자흐스탄 통계청의 문제로는 자격을 갖춘 관리자 및 강사가 부족하며, 언어적 장벽이 있고 이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e-Learning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함. 특히,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e-Learning 분야에 대한 과정 개설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KOICA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함.

#### (8) 향후 협력방안

- 통계교육과 e-Learning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를 위해 참가 기구사이에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함. 통계교육원은 e-Learning에 대해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교육과 e-Learning에 관한 관련 기구들을 초청하고 2009년 9월 이후 신축청사 입주에 맞춰 1~2일 정도의 워크숍을 개최할 것임
- 독일통계청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통계청에게 더 많은 교재와 교육 과정 정보를 제공할 것임
- 카자흐스탄 통계청은 독일, 터키 통계청과 통계교육원에게 통계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의 발전에 대한 원조를 부탁하였고, 특히 통계교육원에 e-Learning에 대한 조언을 받기로 함
- 통계교육원은 2008년 말까지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이고 “통계와 영어” 등의 비디오 강좌를 볼 수 있을 예정임. 하지만, 영어 버전의 교육과정 개설은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임

## 2. InWEnt

가. 방문일시 : 2008. 08. 28.(목)

### 나. 참가자

- (1) 한국 : 전백근 교육기획과장 외 2명
- (2) 독일 : Mr. Wolfgang Schulze(국제과 부서장), Ms. Simone Koll(국제과 직원), Mr. Bruno Speer(국제과 직원)
- (3) 터키 : Mr. Sevket Kirici(터키통계청 교육생)
- (4) InWEnt : Mr. Markus Wauschkuhn(상위 프로젝트 관리자), Dr. Uwe Singer(상위 프로젝트 관리자) 외 3명

### 다. 주요 활동사항

- (1) InWEnt 의 e-Learning 시스템 및 국제통계교육활동 발표
- (2) 통계교육원의 e-Learning에 대한 발표
- (3) 향후 협력방안 모색

### 라. 주요 회의내용

- (1) e-Learning 및 국제교육협력

## 《국제협력사업》

- Inwent는 인적자원개발과 심화 학습, 토론에 관해 헌신하는 비영리 교육 기구로서 주로 지중해 연안 및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과정을 진행하며, 세계은행 및 국제개발협력부처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 과정에 대한 참가비용은 과정마다 상이하며, Eurostat의 경우에는 과정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체재비만 소요됨. 한국의 경우는 통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료이며, 통계 작성 기관 등 타 기관의 공무원의 경우와 일반인에 대해서는 과정마다 책정된 소정의 참가비용을 받고 있음

## 《e-Learning》

- Inwent의 e-Learning 교육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BL과정으로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음. 참가자 중 대부분은 유경험자가 80~90%가량이 되며, BL과정에서 집합교육(Workshop이라고 표현)은 사례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음
- e-Learning 담당자의 역할은 퍼실리테이터(촉진자)의 역할을 하며, 출석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생들과 채팅을 통하여 정보 교류를 하며 웹메일을 이용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즉 강사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채팅프로그램으로 과제를 부여받고 수행하는 것은 모든 참여자가 모이기 힘든 사정 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어 운영하지 않으며, 즉 강사의 역할보다 과정 및 시스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함.
- 특별히 BL 과정으로 운영중인 “국민계정” 과정은 연방은행 관련 기구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픈하며, 아시아 지역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한국 통계교육원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

하였음. 이 과정은 앞으로도 유럽 및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 아시아를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

- e-Learning교육은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나, 세계 여러 나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경우, 지역적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참여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함
- Inwent의 e-Learning 모듈을 보았으나, 자기 학습 중심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동영상 강의만 시행하는 정도의 강의로써, 한국처럼 플래쉬 기능을 이용한 교육은 아니었음
- 아프리카의 경우 컴퓨터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장소로 모인다고 함

## (2) 향후 협력방안

- 첫 만남이지만 각종 자료들을 한국 측에 송부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e-Learning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운영절차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음
- 한국 측은 InWent의 “NA 과정” 및 기타 다른과정에 참여 여부 등에 대해 물었으나,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않음

### 3. Eurostat

가. 방문일시 : 2008. 08. 29.(금)

#### 나. 참가자

- (1) 한국 : 전백근 교육기획과장 외 2명
- (2) 독일 : Ms. Simone Koll(국제과 직원), Mr. Bruno Speer(국제과 직원/  
ESTP에 관련 업무)
- (3) Eurostat : Ms. Thana Chrissanthaki(Eurostat 교육 부서 장, ISI 세션 주  
도), Ms. Veronika RADERMACHEIR(Eurostat 직원/ESTP  
관련 업무)

#### 다. 주요 활동사항

- (1) 유럽의 통계교육 시스템과 한국의 통계교육 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과정  
에 대한 소개 발표 후 질의 응답
- (2) ESTP과정 중 국민계정과정에 한국에서 참여가능성 논의
- (3) 2009년 ISI 대회 통계교육에 관한 발표자로서 참석
- (4) 향후 협력방안 모색

#### 라. 주요회의내용

- (1) 유럽통계교육시스템 및 프로그램(부록 4 참조)
  - Eurostat의 교육은 통계교육과 관리 및 인적 자원 교육, 특정 Eurostat  
전문가를 위한 교육 의사소통기술의 발전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음

- 특히 통계교육에 관하여, 심화 통계교육은 내부 강사에 의해 많은 과정과 세미나가 열림 (예를 들면, 통계품질, 국민계정, SAS 등)
- 교육은 새로운 Eurostat의 기본 틀을 사용하는 경험 있는 외부 강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앞으로 Eurostat 직원은 유럽통계교육프로그램 (ESTP)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나, 장소와 주제는 역시 제한적임
- 통계작성 과정은 정규 과정이며, 인터넷 상으로 통계가들을 위한 의사소통 과정들이 진행됨
- 여러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며, 교육은 Eurostat의 강의장 및 회의실에서 하거나 타 교육수요 국가의 통계청 및 대학 등의 장소를 섭외하여 강의하기도 함
- 연간 평가 시스템이 있으며, 연간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한다는 면에서 한국과 유사하며, 교육 수요조사에 역시 설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 2009년 남아공의 Durban에서 열리는 국제통계기구(ISI) 세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아시아 지역 혹은 한국의 통계교육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발표자로서 참석해 줄 것을 확인하였으며 참석자, 발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주기로 약속함

## (2) 향후 협력방안

- 2009년 ISI 대회 참석에 대한 확답을 받고 통계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발표자로서 참석하기로 하였으며 ISI 세션은 Eurostat 교육 부서장인 크리스 산타키가 통계교육에 관한 세션을 주관할 예정임
- 국민계정 과정에 한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추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